



증시 하락 배경과 향후 전망

주요 이벤트 앞두고 경계 심리 확산

변동성 확대 시 주도주 매수 전략 유효

KEY DRIVER

- 금일 코스피는 오후 들어 낙폭을 확대하면서 4.52%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상승했던 코스닥도 하락 전환하면서 1.67% 내렸습니다. 최근 4거래일 동안 매도 및 매수 사이드카가 번갈아 나오는 극심한 변동성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하락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AI 인프라 투자 관련 우려가 확산됐습니다. 미국 데이터센터 개발 기업 크루소(Crusoe)가 고객 요청에 따라 1.8GW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 개발을 일시 중단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한국 시간 내일 새벽 예정된 오라클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높아졌습니다. 오라클은 오픈AI의 핵심 인프라 파트너로, 투자자들은 오라클의 실적을 통해서 AI 인프라 수요의 지속 가능성을 재확인하려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여전히 AI 수요 둔화를 의심하기에는 이른 시점입니다. 오히려 크루소는 전일 계약된 AI 인프라 규모가 4.9GW에 달하며, 개발 파이프라인은 40GW를 상회한다고 발표하면서 하이퍼스케일러의 인프라 투자가 여전히 견조함을 시사했습니다.
- 둘째, 매크로 이벤트를 앞두고 경계심이 유입됐습니다. 지난주 미국 고용 지표 서프라이즈 이후 매크로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오늘 밤 미국 CPI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근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물가 압력은 일부 품목에 제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세가 근원 물가로 확산되는 조짐이 나타날 경우 국채 금리 상승과 연준의 긴축 우려가 재차 부각될 수 있습니다.
- 셋째, 수급 이슈가 증시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옵션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라 시장조성자의 감마헤지 매도가 현물시장 변동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한국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을 앞두고 감마 민감도가 높아진 가운데, 프로그램 매매와 맞물려 변동성이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오는 금요일 스페이스X IPO를 앞두고 자금 확보를 위해 기존 주도주를 차익 실현하는 수요가 증시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급 관련 이슈들은 이벤트 종료 이후 완화될 가능성이 높은 단기 변수로 판단합니다.
- 넷째,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며 지정학적 긴장감이 재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해 자국 헬기 격추 사건에 대한 보복 공격을 실시했고, 이에 맞서 이란은 미군 기지를 공습했습니다. 그럼에도 국제 유가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진전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어 이번 사건이 확전으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번 조정은 주요 이벤트를 앞둔 경계 심리와 수급적 요인이 결합된 결과로 판단합니다. 여전히 AI의 성장 경로가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고, 국내 기업들의 이익 전망 역시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일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를 비롯한 주도 업종에서 가장 빠른 반등이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분간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수 있지만, 이를 주도주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항목은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항목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